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요인과 시정방안

한 상 춘

Korea-Japan Trade Deficit and Policy Implication

Sang-Chun Han

● 한상춘(대우경제연구소)
● 1960년생
●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은행을 거쳐 현재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1. 머리말

우리나라는 '94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483 달러, 연간무역량이 1,98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오는 2000년에는 1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실현하여 국제수지 단계에서 미성숙 채권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무역적자가 6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는 지난 3월까지 43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일 교역에 있어서는 지난 '65년 한일간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우려마저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특히 지난 '92년에는 대일 수출촉진, 수입절감,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등에 걸쳐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여 대일 무역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93년 이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무역적자 확대가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위험수위에 근접함에 따라 정부는 「자본재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이 얼마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시기에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동안 실시된 대일 역조개선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일 역조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균형'보다는 '축소'차원에서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점검해 본다.

2.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과 악화요인

2.1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93년을 고비로 확

대되기 시작하여 지난 해에는 6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95년 3월까지 수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5% 증가한 26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35.1% 증가한 30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가 43억 1천만 달러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 해 118억 9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1.9배에 달하고 있는데다, 금년에는 35억 7천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억 달러 정도 확대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대한 무역수지도 '92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섬으로써 전체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표 1 참조)

이같은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 총무역 및 대일 무역규모에 비해 각각 −3.2%, −6.0%, −30.6%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일 무역적자 적정규모를 각 기준별 과거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이에 비해 각각 1.3%p, 2.8%p, 17.7%p나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GNP에 대한 대일 무역수지 비율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감내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대일 무역규모에 대한 대일 무역수지 비율은 대일 특화문제까지 감안하고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대일 역조문제 관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수지/GNP 비율을,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수지/대일 무역 규모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무역의 확대균형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총무역규모에 대한 대일 무역수지 비율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지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일 무역적자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 참조)

표 1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동향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1/4
전 체(A)	−48.2	−96.6	−51.5	−15.6	−63.4	−43.1
對 日(B)	−59.4	−87.7	−78.6	−84.5	−118.9	−35.7
여타지역	11.2	−8.9	27.1	68.9	55.3	−7.4
B/A(배)	1.2	−0.9	1.5	5.4	1.9	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단위 : 억 달러, 배

2.2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요인

2.2.1 무역구조 요인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처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선 일본의 수입시장 구조변화에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구조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수입은 경기회복세와 경제종합대

표 2 개선차원의 대일 무역적자 적정수준과 현수준과의 비교

구 분	대일무역수지/GNP	대일무역수지/총무역	대일무역수지/대일무역
적정수준(A)	−1.9	−3.2	−12.9
현 수준(B)	−3.2	−6.0	−30.6
괴리도(A-B, %p)	1.3	2.8	17.7

주 : 1) '94년 기준임
2) 대일 무역적자의 적정수준은 과거의 평균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대일 무역적자 개선차원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선택함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단위 : %, %p

표 3 일본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구조 변화

구 분		'86~'88년	'93년	'94년
일 본	전 체 수 입	12.8	3.6	14.1
	경공업 제품	42.8	10.3	19.9
	중화학 제품	28.9	6.0	21.7
한 국	對 日 수 출	38.2	--0.3	16.9
	경공업 제품	54.4	-5.7	2.9
	중화학 제품	39.9	9.5	26.3
수입구조 적응계수		0.8824	-0.7167	-0.1818

자료 : 일본 관세협회, 외국무역개황, 각호
한국무역협회, KOTIS
단위 : %

책, 관서대지진에 따른 복구 등으로 '93년 3.6%에서 지난 해에는 14.1%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공업 제품은 19.9%, 중화학제품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소비구조가 양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 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전체적으로 '93년에 비해 16.9% 증가한 가운데, 경공업 제품은 2.9% 증가에 그친 반면, 중화학 공업제품은 26.3% 증가하여 일본시장의 수입구조 변화에 상치(相馳)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얼마나 일본의 수입구조 변화에 잘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어주는 수입구조 적응계수(輸入構造 適應係數)[1]를 살펴보면, 지난 '86~'88년에는 수입구조 적응계수가 0.8824로 나타나 일본의 수입구조 변화에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구조가 비교적 잘 적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93년과 지난해에는 수입구조 적응계수가 각각 -0.7167, -0.1818로 나타나, 결국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구조가 일본의 수입구조 변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2.2.2 국제경쟁력 요인

우리나라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지난 '88년에는 6.3%로 아시아 국가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3년에는 4.8%까지 하락하였다. 물론 지난 해에는 4.9%로 다소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중국과 싱가폴이 '88년에 각각 5.3%, 1.2%에서 지난 해 10.0%, 1.7%로 크게 상승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력 강화여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인 상대경쟁력격차지수(相對競爭力隔差指數)[2]를 이용하여 '88년 이

1) 輸入構造 適應係數는 한 나라 수출의 對교역상대국 수입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교역상대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잘 적응해가고 있음을, '-1'에 가까울수록 교역상대국 수입구조 변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수입구조 적응계수는 식(1)과 같이 산출함

$$ACI_{kj}=1-\{(\sum_{i=1}\dot{IM}_{ij}/\dot{IM}_{cj})-(\sum_{i=1}\dot{EX}_{ikj}/\dot{EX}_{ckj})\} \quad (1)$$

여기서, ACI_{kj}는 K국의 J국에 대한 수입구조 적응계수, $\dot{IM}_{ij}$는 J국의 비교대상품목 I의 수입증가율, $\dot{IM}_{cj}$는 J국의 기준품목 C의 수입증가율, $\dot{EX}_{ikj}$는 K국의 J국에 대한 비교대상품목 I의 수출증가율, $\dot{EX}_{ckj}$는 K국의 J국에 대한 기준품목 C의 수출증가율을 각각 의미함).

2)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한 각종 경쟁력 지표는 시장점유율이 하락 혹은 상승할 경우, 단순히 국제경쟁력이 악화 혹은 강화되는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경쟁국과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식(2)로 정의된 상대경쟁력 격차지수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RCSI_t=(MS_{ct}/MS_{kt})/(MS_{co}/MS_{k0}) \quad (2)$$

단, $RCSI_t$는 t기의 상대경쟁력 격차지수를, MS_{ct}는 t기의 경쟁국의 해당지역 시장점유율을, MS_{kt}는 t기의 우리나라의 해당지역 시장점유율을, MS_{co}는 기준년도의 경쟁국의 해당지역 시장점유율을, 그리고 MS_{k0}는 기준년도의 우리나라의 해당지역 시장점유율을 의미한다.

후 지난 해까지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살펴보더라도, 중국에 비해서는 142.7%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폴에 비해서는 82.1%, 대만에 비해서는 6.7%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콩에 대해서만 같은 기간중 6.9%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요인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재료비, 인건비, 금융비용 부담으로 기업의 비용요건이 크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각국의 생산비에서 재료비, 임금, 금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단위생산비지수[3]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88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 재료비 인상 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85년 이후 지난 해까지 22.5% 상승하였다. 특히 '93년에 들어서는 임금상승률 둔화와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단위생산비 증가율은 0.8%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2.8%, 싱가폴 −2.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유입 동결로 인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만의 단위생산비는 지난 해에는 2.5% 상승하여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4 경쟁국별 일본수입시장에서의 경쟁력 현황

구	분	'88년	'90년	'93년	'94년
일본 수입시장점유율(%)	한 국	6.3	5.0	4.8	4.9
	대 만	4.7	3.6	4.0	3.9
	싱가폴	1.2	1.5	1.4	1.7
	홍 콩	1.1	0.9	0.8	0.8
	중 국	5.3	5.1	8.5	10.0
상대 경쟁력 격차지수	대 만/한국	100.0	96.0	110.7	106.7
	싱가폴/한국	100.0	157.9	152.6	182.1
	홍 콩/한국	100.0	105.9	100.0	93.1
	중 국/한국	100.0	121.4	210.8	242.7

자료 : 일본 관세협회, 외국무역개황, 각호
단위 : %

표 5 경쟁국별 단위생산비 지수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일 본	92.5	91.1	92.6	94.5	95.6	95.5	92.8
한 국	99.6	105.2	109.3	113.4	118.4	121.5	122.5
대 만	94.6	93.7	95.4	95.4	95.1	93.1	95.4
싱가폴	90.4	89.5	97.7	100.7	97.0	93.6	91.5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1985=100, %

2.2.3 대일 수출상품과 경쟁력

한편,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일본상품과의 경쟁력을 UN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4]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유기화학품, 원동기기·설비,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일반기계, 전기기계·부품, 전문의료·광학기계 등 대부분 자본기술집약적인 품목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반면, 플라스틱, 나무제품, 섬유제품, 신발류, 생활용품,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에서는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본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

3) t기의 단위생산비 변동률 E_t는 $\sum W \times C_t$로, t기의 단위생산비 지수는 I_t는 $I_{t-1} \times (1+E_t)$로 산출함. 단, 여기서 W : 생산요소비용 가중치, C_t : t기의 개별 생산요소가격 변동률, I_{t-1} : $t-1$기의 단위생산비 지수, E_t : t기의 단위생산비 변동률을 각각 의미한다.

4) 貿易特化指數는 국제경쟁력지수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데, 동 지수의 값이 0~+1인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0~−1인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함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식 (3)에서와 같이 산출함.

$$TSI_{ij} = (EX_{ij} - IM_{ij}) / (EX_{ij} + IM_{ij}) \quad (3)$$

여기서, TSI_{ij}는 i국의 j상품의 무역특화지수를, EX_{ij}는 i국의 j상품의 총수출액, IM_{ij}는 i국의 j상품의 총수입액을 각각 의미한다.

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을 하려면 여전히 요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제품에 비해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적인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ASEAN 국가들의 공업화가 일정수준에 도달됨에 따라 우리 수출상품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제품에 비해 경쟁력

표 6 주요 품목별 일본상품과의 경쟁력 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코드	품 목 명	'90	'91	'92	평균	'91	'91	'92	평균
51	유기화학물	−0.644	−0.580	−0.350	−0.525	0.160	0.155	0.225	0.180
52	무기화학물	−0.632	−0.683	−0.677	−0.664	−0.369	−0.391	−0.387	−0.382
53	염료・착색제	−0.573	−0.524	−0.433	−0.510	0.272	0.326	0.382	0.326
54	의약품	−0.417	−0.433	−0.408	−0.419	−0.527	−0.481	−0.457	−0.488
55	향료・화장품	−0.586	−0.713	−0.622	−0.640	−0.112	−0.150	−0.093	−0.118
56	비료	0.319	0.171	0.207	0.233	−0.595	−0.570	−0.578	−0.581
58	플라스틱(製)	−0.097	0.020	0.230	0.051	0.467	0.445	0.527	0.480
59	기타 화학물	−0.781	−0.780	−0.765	−0.776	−0.055	−0.066	−0.146	−0.089
61	가죽제품	−0.930	0.604	−0.384	0.639	−1.352	1.238	−1.262	1.284
62	고무제품	0.684	0.615	0.666	0.655	0.625	0.603	0.614	0.614
63	나무제품	0.158	0.000	−0.037	0.040	−0.903	−0.885	−0.870	−0.886
64	종이・판지	0.003	−0.130	−0.061	−0.062	0.269	0.279	0.279	0.276
65	섬유사・직물	−0.083	0.179	0.211	0.102	0.144	0.169	0.219	0.177
66	비금속광물	−0.145	−0.300	−0.261	−0.235	0.179	0.201	−0.033	0.115
67	철강제품	0.061	−0.069	0.171	0.054	0.467	0.425	0.556	0.483
69	기타금속제품	0.324	0.248	0.313	0.295	0.437	0.430	0.469	0.445
71	원동기기	−0.382	−0.599	−0.562	−0.514	0.798	0.677	0.705	0.727
72	특수산업기계	−0.509	−0.711	−0.647	−0.622	0.645	0.692	0.725	0.687
73	금속공작기계	−0.777	−0.807	−0.782	−0.788	0.154	0.268	0.276	0.233
74	일반기계・장비	−0.620	−0.771	−0.519	−0.637	0.613	0.628	0.653	0.631
75	사무용기계	0.197	0.191	0.281	0.223	0.646	0.650	0.665	0.654
76	통신기기	0.643	0.888	0.604	0.712	0.833	0.817	0.803	0.818
77	전기기계・부품	0.063	0.087	0.116	0.088	0.615	0.607	0.642	0.621
78	도로주행차량	0.631	0.547	0.646	0.608	0.796	0.827	0.845	0.822
81	건축물자재	0.697	0.697	0.704	0.700	−0.634	−0.639	−0.653	−0.642
84	의복제품	0.964	0.953	0.924	0.947	−0.878	−0.883	−0.891	−0.884
85	신발류	0.990	0.986	0.979	0.985	−0.922	−0.919	−0.917	−0.919
87	전문과학기기	−0.625	−0.709	−0.647	−0.660	0.295	0.321	0.357	0.324
88	광학용품	−0.247	−0.226	−0.203	−0.225	0.619	0.617	0.609	0.615
89	잡제품	0.601	0.521	0.438	0.520	−0.115	0.085	0.127	0.032

주 : SITC 두 자리 기준임

자료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 Book(Volume II, Trade by Commodity, Commodity Matrix Tables), '94년 6월

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 참조)

2.2.4 대일 수입유발적 구조

수입면에서는 '92년 이후 크게 부진하였던 설비투자가 지난 해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노후설비투자의 대체 등으로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은 전체 자본재 수입증가율보다 높아 대일 자본재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비투자가 '93년 0.3%에서 지난 해에는 23.3% 증가됨에 따라 자본재 수입은 각각 −0.1%, 32.1% 증가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은 '93년 4.9%에서 지난 해에는 32.5% 증가되어 대일 자본재 의존도는 36.8%에서 38.4%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43.5%에서 43.9%로 대일 자본재 의존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참조)

더욱이 '92년 이후 지속되어온 엔화 강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대일 수입유발적 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舊엔高('86년~'88년)와 新엔高('92년~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변화를 보면, 두 시기 모두 수혜업종으로 나타난 전자부품, 일반기계, 자동차 등은 新엔高 시기에 있어서는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新엔高 시기에 새롭게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이 수혜업종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舊엔高시에 수혜업종이었다가 新엔고시에는 비수혜업종으로 탈락한 업종은

표 7 설비투자 증가와 대일 자본재 의존도

구 분	'93년	'94년
설비투자 증가율	0.3	23.3
자본재 수입증가율	−0.1	32.1
대일 자본재 수입증가율	4.9	32.5
대일 자본개 의존도	36.8	38.4
대일 기계류 의존도	43.5	43.9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섬유류, 신발류, 가정용 전자 등 대부분 노동집약적 품목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의 대일 수입유발계수(輸入誘發係數)[5]를 보면, 대체로 이번 엔高시에 수혜품목인 전자부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은 수출의 대일 수입유발계수가 0.8~0.17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혜품목인 섬유류, 생활용품 등은 0.4~0.7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엔화 강세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엔고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품목의 대일 수입유발계수가 0.1이라 함은 동 품목의 전체수출이 10억 달러로 가정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자동적으로 1억 달러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8 참조)

2.2.5 대일 자본재 선호성향

실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입부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한 선호성향도 대일 무역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기계수주는 26.9% 증가한데 비해, 기계류수입 허가액은 73.6%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입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선호경향은 국산품의 품질, 기술,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경쟁력의 취약에도 기인하지만, 무

5) 對日 수입유발계수는 '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 (4)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J_M \cdot A^m \cdot (I - A^d)^{-1} \cdot VEX \qquad (4)$$

단, J_M는 對日 수입비중 대각행렬, A^m는 수입투입계수, $(I-A^d)^{-1}$는 생산유발계수, VEX는 산업별 수출액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표 8 주요 품목별 전체수출의 대일 수입유발계수

구 분	新·舊엔高시 수혜정도		주요 품목별 수출의 대일 수입유발계수
	舊엔高('86~'88)	新엔高('92~현재)	
전 자 부 품	●	⊙	0.17
석 유 화 학	X	⊙	0.15
일 반 기 계	●	⊙	0.10
자 동 차	●	●	0.08
철 강 제 품	X	●	0.08
섬 유 제 품	●	X	0.07
펄프·종이	●	X	0.05
생 활 용 품	●	X	0.04
가정용 전자	●	X	0.14

주 : 1) 수혜여부는 해당기간 전체 평균수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엔高에 따른 수혜정도가 ⊙ : 높음, ● : 보통, X : 비수혜로 구분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엇보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품 및 자본재 시장의 특성상 거래규모가 매우 크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결국 자금조달 비용이 가격경쟁력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란 그리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기계 구입자금이 외화대출중 외산기계 수입자금보다 지원규모가 금리면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다.(표 9 참조)

2.2.6 정책적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재 수입과 엔高에 따른 수출구조 변화가 대일 수입을 유발시키는 것은 정부의 국산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0년대 후반 이후 주요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국산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국내수요중 수입부품 및 수입자본재의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있어 핵심품목인 기계류, 전기·전자의 수입침투유율[수입/(생산+순수출)]을 보면, '90년 각각 17.0%, 46.0%에서 '93년에는 17.1%, 47.6%로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산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국산화 정책시행에 따른 자금지원규모 자체가 품목별 평균 1억 8천만원에 불과한데다, 저가단품 위주의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실제로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요인인 첨단핵심부품과 고부가 기계류 개발

표 9 주요 품목별 전체수출의 대일 수입유발계수

구 분	'86년	'87년	'93년	'94년
국내기계수주증가율	25.4	37.4	12.1	26.9
기계류수입허가증가율	46.7	49.7	10.5	73.6

자료 : 통계청, 단위 : %

표 10 주요 자본재의 수입침투율 변화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기 계 류	17.0	17.9	18.3	17.1
전기·전자	46.0	47.2	48.8	47.6

주 : 수입침투율=수입/(생산+수입-수출)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각호
단위 : %

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기계류 개발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된 기계도 곧 사양화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표 10 참조)

3. 대일 무역수지 전망 및 대응방안

3.1 대일 무역적자 전망

금년 1월에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는 대일 수출지원이나 대일 수입억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고, 그후 대일 무역적자 수준을 감안하여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WTO에 최혜국대우(MFN)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에에 위배되기 때문에 곧바로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이나 최근 발표한 자본재 육성책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을 통한 대일 무역적자를 시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일 역조시정방안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일 양국의 수입수요변화요인, 상품구성 요인 및 경쟁력 요인(환율요인만을 고려) 등을 감안한 대일 무역적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지난해 1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금년에는 1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99년에는 150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참조)

3.2 대일 역조 시정방안

따라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일 역조를 개선하고 향후 지속될 엔高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배경으로 품질, 기술 등 비가격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수출상품의 고도화를 달성하여 일본시장에서의 경쟁기반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대일 적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높은 대일 의존도에 따라 전체 수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대일 수입이 확대되는 데에 기인하고, 엔高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도 대일 수입유발이 높은 업종으로 개편되고 있어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의 축소를 통해 전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화가득률을 높여 내실있는 수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 및 수출의 높은 대일 수입유발도를 낮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11 대일 무역수지 전망

구 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한국의 실질GDP성장률	8.2	7.4	7.3	7.0	7.1	7.0
일본의 실질GDP성장률	0.6	2.5	3.6	4.4	4.4	3.7
원/달러 환율	803.6	784.8	769.0	759.8	752.8	743.2
대일 무역수지적자	−118.9	−135.6	−136.0	−138.5	−140.9	−150.2

주 : 1) 한국,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은 WEFA전망치 기준임
2) 원/달러 환율은 WEFA 전망치 기준임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95년 1월
단위 : %, 원, 억 달러

이를 위해,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도기술집약적인 잠재성장산업을 조기에 육성하여 대일 수입수요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생산과 해외로부터의 부품조달을 통해 엔高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對韓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기업과의 제휴 또는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현재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노력과 관련하여 일본의 對韓 투자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실수요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부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한 선호경향을 축소하고 국산부품 및 자본재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외화표시 원화대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규모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금리수준을 인하하여 국내외 금리격차를 축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산 자본재의 선호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원화 切上은 현재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주로 원貨 切下要因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